

4. 마을의 특징

1) 문동곡(文童谷)

마을 앞 내(川) 건너에 있는 음달촌(村)으로 산등(山嶺)에 위치하며, 주위에 대밭이 발달한 독가촌인데 옛날 아이들의 글방이 있었다 하여 이름 지어진 골(谷)이다.

2) 옹기점

1900년경에 김씨(金氏) 성(姓)을 가진 사람이 마을에 들어와서 옹기움을 짓고 70여 년간 옹기를 구워왔다 하여 옹기점이라 한다.

3) 응재봉(鷹在峰)

전설에 의하면 동해가 끓어 올라 해발 400m 높이의 산(山)이 물에 잠기고 산꼭대기에 매(鷹) 한 마리가 앉을 만큼 남았다 하여 응재봉(鷹在峰)이라 한다.

4) 이촌(李村)과 전촌(田村)

전주 이씨(全州李氏) 정착 후 담양 전씨(潭陽田氏)도 정착하였으며, 이 마을의 뒷계곡 물이 마을 가운데를 흘러 도랑이 형성되었는데, 도랑 위쪽[서쪽]에는 이씨(李氏)가 살고, 도랑 아래쪽[동쪽]에는 전씨(田氏)가 살게 되면서 이촌(李村), 전촌(田村)이라 불려왔으며, 현재에도 그렇게 부르고 있다.

5. 새미산 전설

이 마을 뒤에 마을을 수호(守護)하는 새미산이라고 부르는 당목(堂木)이 있었는데 매년 3월 10일에 집집마다 한 차례씩 깨끗한 제사음식을 마련하여 주부(主婦)가 당나무 신(神)에게 치성을 드려왔는데 현재에도 이 풍속을 지켜오는 가정이 있다.

제28절 주인3리(周仁三里)[속명 : 면전(綿田)]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응봉산(鷹峰山) 지맥(支脈) 아래에 대수호(大藪湖)[원자력발전소의 공업용수인

저수지]와 주인2리(周仁二里)가 있고, 서쪽은 절골로 절터와 갈매골이 있으며, 남쪽은 장재산(長在山)이 있다. 북쪽은 뒷골 장재등 형성봉이 솟아있고, 그 너머에 강원도 삼척군 원덕읍 사곡(沙谷)이 있다. 마을회관은 2003년에 건립되었으며, 경로당과 공용이다.

2. 마을의 역사

1200년경 김씨(金氏), 심씨(沈氏) 두 선비가 한양(漢陽)에서 내려와 큰 숲을 치고 이 마을을 개척하여 대수리(大藪里)라 하였으며, 그 후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주인리(周仁里)라 개칭하였다. 자연부락의 유래(由來)는 다음과 같다.

1) 대수리(大藪里)

1200년경에 김씨(金氏), 심씨(沈氏)가 개척한 마을로 23가구가 살고 있다. 1979년경 원자력발전소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대수댐 건설로 수몰되면서 폐동되었다.

2) 면전리(綿田里)

밭이 많고 양지(陽地)발라서 목화(木花)가 잘 된다고 하여 면전(綿田)이라 한다.

3) 사곡리(沙谷里)

고려시대 사찰인 장재사지가 있다.

3. 가구 분포

총 28세대가 거주하며 울진 임씨(蔚珍林氏)와 삼척 심씨(三陟沈氏), 담양 전씨(潭陽田氏), 울진 장씨(蔚珍張氏), 인동 장씨(仁同張氏), 삼척 김씨(三陟金氏), 평산 신씨(平山申氏) 등이 세거하고 있다.

4. 마을의 특징

1) 삼층석탑(石塔)

고려시대에 창건한 장재사(長在寺)에 축탑(築塔)한 것으로, 사찰은 없어지고 삼층석탑(塔)만 남아있다.

2) 성조암(聖祖庵)

숙종 때에 한 승려가 초가(草家) 일동(1棟)을 지어 목불(木佛)을 안치(安置)하고 수도(修道)하던 곳으로, 1979년에 마을이 수몰되면서 주인2리인 중리마을로 이迁했다.

3) 장재산(長在山, 藏財山)

고려시대에 어느 사람이 장재산(長在山)에 밭을 약 10정(町) 개간하여 부자(富者)로 살았다 하여 장재산(長在山, 藏財山)이라 하였다.

제29절 하당리(下塘里)[속명 : 당가리(塘街里)]

1. 마을의 자연환경

동쪽은 개머리산과 원당(元塘) 말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 울진 남대천으로 흐르고 정림3리(井林三里)와 인접하였으며, 서쪽은 악구산(岳丘山)과 구산들을 지나 두천1리(斗川一里)와 접하고, 남쪽은 나그네재(嶺)와 구석들이 있다. 북쪽은 원당(元塘)에서 물이 흘러오는 수구(水口)와 섬바우들, 세들, 중평(中坪)이 있다. 북면사무소 하당출장소가 위치하며, 2003년에 건립된 마을회관과 하당보건진료소가 있다. 부구초등학교 삼당분교가 있다. 삼당분교 어귀에 ‘십이령등금쟁이’ 놀이를 전수하는 십이령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되어 있으며, 해마다 이곳에서 십이령등금쟁이축제가 펼쳐진다.

2. 마을의 역사

1700년경에 성황당(城隍堂)을 많이 설립하면서 마을 이름을 당가리(塘街里)라 하였다. 그 후 행정구역 개편 때에 하당리(下塘里)라 개칭하였다. 중당(中塘)은 원당(元塘)과 당가리(塘街里)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므로 중당이라 불렀으며, 1700년경에 김해 김씨(金海金氏)와 영해 박씨(寧海朴氏)가 다래 넝쿨을 걷어내고 전답(田畓)을 만들어 개척했다고 전해진다. 김해 김씨(金海金氏)가 모시는 성황당(城隍堂)이 있다.

3. 가구 분포

총 66세대가 거주하며 김녕 김씨(金寧金氏), 경주 이씨(慶州李氏), 담양 전씨(潭陽田氏),